

중소 체감경기 본격 회복세 인쇄업종은 여전히 불투명

최근 전반적인 경기회복세에 맞춰 중소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보증기금이 17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경기전망지수(BSI)가 109로 지난해 1/4분기이후 5분기만에 처음으로 100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보다 높으면 향후 경기를 좋게 보는 업체가 나쁘게 보는 업체보다 많아 경기가 호전됨을 의미하고 미만인 경우는 반대로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지난 1/4분기의 BSI 실적치는 97로 나타나 지난해 4/4분기 실적치인 80보다는 크게 상승했으며 2003년 4/4분기의 103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중소기업 체감경기가 최소한 바닥을 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문별 경기 전망치를 보면 가동률 110, 설비투자 111, 판매동향 110, 고용사정 107, 자금사정 106으로 모든 부문에서 기준치 100을 넘어서 중소제조업의 체감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종이, 출판, 인쇄(82)와 섬유, 의복, 가죽(97) 등 2개를 제외하고 화학제품(135), 기계제조(117), 전기, 전자, 통신(116), 사무, 의료, 정밀기기(115), 음식료(115) 등 전 업종이 100을 넘었다. 지역별로도 전남과 제주(89), 대구(99)를 제외하고 전 지역이 100을 넘어섰다.

산업단지내 500평미만 공장 허용

국가산업단지안에 5백평 미만의 작은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최홍건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경남 창원산업단지공단에서 1백여명의 지역중소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대책회의"에서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분할면적 기준을 완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경남지역 중소기업인들이 현재 국가산업단지안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1천650㎡(5백평) 이상이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기준이 완화되면 지금까지 국가산업단지 안에는 주로 기간산업 및 중화학업체 등 중견이상 기업들이 주로 입주해 왔으나 소기업들도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오는 7월부터 국토개발 관리

지역안에서 1만㎡미만의 소규모공장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산학협력등에 1천억원 투자

서울시는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동북아시아의 연구개발(R&D) 중심이자 국가산업혁신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대학·기업·연구소가 함께 협력, 산업·과학·교육·문화자원을 활용하는 2005년도 산학연 협력사업에 1천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시가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산학협력 기술 기반 구축과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3개 분야 14개 사업이다. 이 가운데 우선 산학협력 기술기반 구축을 위해 △전략산업 혁신 클러스터 육성 △서울형 미래도시산업 육성 △세계 유수 연구소 유치 △특허등록 △산학협력단 활성화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신기술 연구개발 △보유기술 사업화 △중·고교 과학연구 등의 지원사업과 정부지원 서울시 대응투자사업,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지도사업을 펼치게 된다. 이어 인력양성 분야로는 중소기업 맞춤형 현장기술 인력양성사업과 서울지역 대학생 창업동아리 및 서울과 학장학생 지원사업, 서울시 과학교실 운영사업 등을 시행하게 된다. 이들 사업의 평가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서울경제연구원센터가 전담하고 서울산업진흥재단이 협약체결 등의 사후관리를 맡게 된다. 사업은 공모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성격에 따라 공모절차, 정부지원절차, 지자체 추진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대학들의 준비기간을 감안, 4월 초부터 사업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2010년까지 글로벌중소 100곳 육성”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최근 “2010년까지 중소기업 100개를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숙명여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인간개발연구원 30주년 기념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글로벌스타 100' 계획을 올 하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스타 100'은 2010년까지 대기업으로 전환된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공장설립 등 각종 규제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적용하며, 특히 고용창출을 통한 대기업 전환은 각종 지원 시 우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이 보호·육성에만 치중돼 고용창출 및 대형화를 통한 대기업 전환을 저해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로 대기업, 수출, 정보기술(IT) 등 선도부문의 성과가 중소기업 등에도 원활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여전히 은행돈 빌리기 힘들어

최근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2월말 현재 237조8141억원으로 전달보다 2542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작년 하반기 이후 대출둔화세가 지속됐다. 이는 작년 같은 달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액 2조942억원의 1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은은 중소기업들의 경우 경기부진으로 채산성이 악화돼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은행들이 대출을 자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경기회복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실제 생산증가로는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5월부터 저소득근로자 여행경비 지원

문화관광부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여행경비 일부를 부담하는 ‘여행바우처’ 제도를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비 지원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해 월소득 170만원 이하인 중소기업체 근로자다. 한가족 여행비 가운데 30%(15만원 한도)는 정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부담하고 30%는 소속 기업체가, 나머지 40%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이다. 여행바우처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공모해 선정하는 여행상품을 선택해 소속 기업에 신청하면 된다.

대기업 월급 中 2배 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로 인한 양극화가 여전히 문제로 나타났다.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상

승률은 6.0%로 2003년 상승률 9.2%에 비해 3.2% 포인트 감소했다.

임금 상승률은 2001년 5.1%에서 2002년 11.2%로 증가했다가 2003년과 지난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지난해 500인 이상 기업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32만7천원으로 5~9인 기업(164만2천원)에 비해 두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中 근로자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국민임대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 우선공급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용면적 18평 이하 국민임대아파트를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은 물론 30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공급 물량은 전체 건설물량의 15%이내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우선공급 물량을 정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앞으로 새로 짓는 모든 국민임대단지에 적용된다”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골판지포장조합 기술연구회 사업 추진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은 최근 다양한 지기구조설계를 통해 골판지상자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적재산권 활용으로 조합원사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만간 기술연구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NON-STAPLE BOX & CASE 기술연구회’라고 명명된 기술연구회는 골판지포장조합을 주관기관으로 학계에서는 소재분야 조병목 교수(강원대), 상자디자인분야 박근실 교수(신성대) 등 관련 분야 연구진들과 삼보판지, 삼성피앤씨, 유니패킹 등의 기업이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키로 하고 중소기업체에 지원을 요청했다. 조합은 그동안 국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형식의 골판지상자의 설계는 미국, 일본 등지에서 개발된 디자인을 모방하는 수준에서 이뤄져 왔으며 일부 상자 전문 지함업체에서 간헐적으로 개발되어 왔을 뿐이라며 이번 기술연구회 출범을 시작으로 국내 포장관련 업계의 기술력이 한층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달사업 조기집행 체제 가동

조달청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조달사업의 65%를 집행하기로 하는 등 조기집행 체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장기계속공사 계약, 단가 계약 등은 이달에 집중 체결하고 조달사업 사전 예시, 공공기관 간담회, 전담관 방문 수주활동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조기발주를 유도하고 조기집행 상황실을 본청과 전 지방청에 설치 운영키로 했다. 조기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품 대금을 대금 청구 후 4시간 이내에 지급하는 대금즉불제와 계약대금의 최대 70%까지를 지급하는 선급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고용창출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시 가산점(5인 이상 0.5점, 10인 이상 1점 가점)을 주는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중소기업과 여성기업 등에 대해서는 판로지원을 6.5~9.6%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조달청은 올해 조달사업 목표액 25조6천300억원 가운데 35%(7조6천억원)를 1/4분기에, 65%(14조1천억원)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간소화

빠르면 4월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 가운데 하나만 선택토록 돼 있는 '1사1제' 원칙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폭이 확대되며 채용절차도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수급과 사업주의 불편 해소를 위해 1사1제도 원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1사1제도는 사업주들이 필요한 외국인력 고용 시 두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정부는 외국인력 규모를 지난해 고용허가제 미도입인원 2만1천명과 추가 수요인력 1만8천명, 지난해 산업연수제 미도입인력 7천명, 출국 예상 외국인 등 대체예비인력 2만6천명 등 7만2천명으로 잡았다. 정부는 출국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외국인을 새로 고용할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7일로 줄이고 처음 들어온 근로자는 최대 3개월의 수급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10인 이하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허가 인원을 내국인의 절반 이내에서 2~5인으로 제한하던 것을 내국인 절반 이내 규정을 삭제하고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범위를 좁혀 외국인 고용을 쉽게 했다.

기술신보 중앙기술평가원 개설

기술신보보증기금은 기술평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에 중앙기술평가원을 개설하고 경남 창원과 충남 아산에 지역기술평가팀을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기술신보 빌딩 내에 설치되는 중앙기술평가원은 기술평가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며 현물출자용 산업재산권평가와 코스닥 등록기업 평가, 기술거래 이전 및 인수합병을 위한 기술평가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기술평가 분야도 확대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신 사업분야 진출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는 전략적 평가나 기술개발에 대한 사업화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주는 전문평가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경남 창원과 충남 아산에 지역기술평가팀을 추가로 설치해 경남 중·서부지역과 충남 북부지역의 중소·벤처기업들이 손쉽게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술신보는 중앙기술평가원 1곳과 전국의 주요 거점 도시에 기술평가센터 10곳, 지역기술평가팀 3곳을 운영하게 돼 전문 기술평가 기관으로 역할이 강화된다.

중소기업 대상 간편납세제 도입 검토

소형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은 세금을 낼 때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으로 계산해 납부하는 간편 납세제 방안이 정부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뒤 각종 공제액을 다시 제외하는 등 세금계산 방식이 복잡해 소형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에게 적지않은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세금문제로 신경을 쓰는데 따른 비용·시간·정신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해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국내에 있는 다국적 기업의 외국인 임원이나 종사자들이 일일이 세금을 계산하지 않고 전체소득의 17%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런 세금방식이 도입되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으며 납세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사비 등 각종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 간편 납세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최근 국회 재경위에 이런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고용창출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

제조업과 광업, 영화·공연산업 등 20개 업종의 고용창출형 창업기업들은 올해부터 창업후 4년간 법인세의 50~100%를 감면받게 된다. 또 상시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면 추가 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12%에서 10%로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올해 3월 법인세 신고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 등 20개 업종의 고용창출형 창업기업들은 업종별로 5~10인 이상을 고용해 창업한 경우 창업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에 법인세를 50% 감면받고 그후 3년 동안은 고용증가율에 비례해 최고 100%까지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일정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 최저한세율이 종전에는 감면전 과세표준의 12%이던 것이 올해부터 10%로 2%포인트 인하된다.

중소 이행보증보험료 최고 25% 인하

서울보증보험은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이행보증보험 보험료를 최고 25%까지 내리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인하되는 상품은 중소기업이 외상거래를 할 때 거래 상대방에게 담보로 제출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과 각종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에 이용되는 이행지급보증보험 등 2종이다.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은 연장 계약건에 대해 25%, 이행지급보증보험은 용역경비와 보험대리점 등 계약과 관련해 15~20%가 각각 인하된다. 서울보증보험은 또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새 보험상품을 곧 출시할 계획이다. 서울보증보험의 중소기업 보증규모는 지난해말 178만건, 28조6300억원으로 2년전에 비해 72만건, 8조5천억원이 늘었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올해도 이행보증보험료 인하를 포함해 중소기업 지원활동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소 근로자 복지카드 탄생

LG카드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저소득 근로자의 개별적인 민간 복지시설 이용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도입하는 ‘선택

적 복지제도 사업의 제휴 카드사로 단독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LG카드는 근로복지공단과 제휴 조인식을 거쳐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위한 복지카드인 ‘웰라이프 카드’를 발급하게 된다. 이 카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 발급되며 이 카드로 콘도미니엄, 수영장, 영화관 등을 이용할 때 결제액의 50%를 근로복지공단이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대신 부담해준다. 지원 수준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또 이 카드는 LG정유 1당 80원 적립, 주요 백화점 3개월 무이자할부 등 LG카드 빅플러스 카드의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지만 연회비는 무료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2종류로 발급되며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한다. 카드 신용판매액의 0.2%는 근로복지공단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사업’의 기금액으로 적립된다.

중진공 ‘품질혁신 최고경영자 연수’ 실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오는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에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품질혁신 최고경영자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품질혁신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연수내용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경영과 성공하는 기업의 CEO 리더십 등이다. 참가대상은 중소기업 경영자 및 임원이며 참가인원은 25명이다. 연수와 관련된 자세한 안내 및 신청문의는 중진공 품질연수실(031-490-1251)로 하면 된다.

신보 중소기업 정보화 설비투자 보증 강화

신용보증기금 충청지역본부(본부장 이행우)는 중소기업의 정보화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보증지원을 크게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보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정보화 관련 설비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요자금 90% 이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신보는 중소기업의 편의를 돕기 위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신보 영업점만 방문, 신청하면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기업, 산업은행으로부터 최대 3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